

# 美최후통첩 속 충돌...이스라엘은 핵시설, 이란은 병원 때려

이스라엘, 이란에 7일차 공습...아라크 중수로·나탄즈 핵시설 등 타격

이란도 미사일·드론 수백발 쏘며 반격...이스라엘 남부 병원 등 피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압박하며 이란에 대해 최후통첩성 경고를 하고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7일째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나탄즈 핵시설 등을 공격하자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과 나탄즈 핵시설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도 아라크 중수로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란 당국자는 아라크 핵시설의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TV는 해당 시설에 대피 조치가 미리 이뤄졌으며, 원자로 인근 민간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간밤에 전투기 40여대와 100여발이 넘는 탄약을 동원해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군사 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아라크 지역에 위치한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 원자로를 공격했으며, 나탄즈 지역에 위치한 '핵무기 개발 시설'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이른 오전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나탄즈 핵시설도 표적 공습한 바 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나탄즈는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에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방식 등은 알리지 않았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km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수백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날려 보내며 반격에 나섰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됐지만, 일부는 방공망



이스라엘 중앙 라마트간에서 19일(현지시간) 이란 미사일 공격 현장에 이스라엘 응급 구조대가 파손된 건물 앞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이란이 발사한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남부 이스라엘의 한 병원을 강타했으며, 텔아비브 지역에서도 또 다른 미사일 낙하가 응급 구조대에 의해 보고됐다. /AFP=연합뉴스

을 뚫고 텔아비브의 고층 건물과 이스라엘 남부의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텔아비브 상공에서는 미사일이 연달아 요격되면서 폭발음이 이어졌으며, 이스라엘 중부 지역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이스라엘 매체들은 전했다.

이스라엘 남부 베르세바에 위치한 소로카 병

원은 이날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여러 명이 다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공습의 여파로 해당 병원의 창문이 깨지고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장면을 전했다.

병원 측은 건물 여러 곳이 파괴됐으며 응급실에서 경미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가 몇 명인지는 즉각 전해지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중증 환자를 제외한 신규 환자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해당 병원 인근에 위치한 이스라엘 군사 및 정보 본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 “지구온난화 마지노선 ‘1.5도’까지 남은 시간 단 3년”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진 발표

지금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3년 후에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저자 등 과학자 60여명이 모인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지구 기후 변화 지표'(IGCC)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19일 국제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SSD)에 발표했다.

IGCC는 2023년부터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 이후의 변화를 반영한 기후 변화 지표를 매년 한 차례 발표한다. IPCC 보고서 발표 주기인 5년간 생길 수 있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세 번째 보고서다.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초 기준 50%의 확률로 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은 1천 300억t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요지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잔여 탄소배출 허용량을 뜻한다.

2021년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서 같은 조건으로 추산한 5천억t CO2e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처럼 연간 약 400억t의 최고치를 유지한다면, 3년 정도면 탄소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24년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보다 1.52도 높았으며, 이 중 1.36도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이 고온 현상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최소 270명 사망’ 인도 여객기 사고 원인 오리무중

“비행 관리 제어 시스템까지 살펴볼 수도”

최소 270명이 숨진 인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항공 전문가들은 단서가 엔진 잔해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조종석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비행 관리 제어 시스템(FMCS)까지 살펴봐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국(DGCA) 등은 지난 12일 인도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한 에어인디아 보잉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하는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이륙 후 30초 만에 추락한 이번 사고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인도 항공기사고조사국(AAIB)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한 키쇼어 친타는 BBC에 “통

제된 비행 상태에서 불과 30초 만에 지형과 충돌했다”며 “이 같은 사고는 그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사고인 만큼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릴 전망이다.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가 여객기 엔진 잔해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만약 엔진을 통해 사고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조종석에 주목하고 고성능 비행 기록장치(EAFR)를 확인해야 한다.

인도 당국이 최근 사고 여객기에서 회수한 이 장치는 비행 데이터뿐만 아니라 조종사 음성, 무선 통신, 배경 소리까지 수집한다.

골츠는 “비행 데이터상 (사고 당시) 엔진이 최대 출력을 내는 상태였다면 조사 초점은 (항공기 날개의) 플랩(고양력장치)과 슬랫(가변형 양력 증대 장치)으로 이동한다”며 “이마저도 문제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조사로 이어진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비행 관리 제어 시스템의 문제로 이어진다면 이는 (사고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 787을 조종하는 '뇌' 역할을 하는 비행 관리 제어 시스템은 항법과 성능 등을 통제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백금 가격 치솟아...11년만 최고가

백금 가격이 약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백금 현물 가격은 이날 한때 2% 이상 오른 온스당 1,350.17달러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백금 현물 가격은 올해 들어 40% 넘게 급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과 은 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